

'선미촌'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전주지역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거점공간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선미촌 중앙에 위치해 지난 4월 매입한 선미촌 내 폐공가와도 인접해있어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공간 활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매입한 폐공가에 대해 이달 중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면 쪽방형태의 여인숙 건물의 일부를 보존해 성매매업소의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10월 초에는 상설 전시공간으로 정비된 폐공가에서 전주시 신진예술가로 선정된 조형예술가 소보람 씨의 '눈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전주시,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폐공가·건물 매입 상설 전시공연·생활창작공간 등 문화공간 활용

것'을 주제로 한 선미촌 내 첫 번째 설치 미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은 사람의 온기를 잃고 방치돼 허물어져가는 구도심 폐공가의 낯설고 익숙해져버린 풍경을 폐공가라는 프레임을 통해 시각적·심리적으로 탐색하려는 설치미술 프로젝트로 빈집에 흩어진 흔적들을 탐색해 오브제들을 채취하고 샘플링하고 스케치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설치 미술전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기능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첫 번째 성과물로 선미촌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형 창작예술공간으로 조성, 선미촌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단계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쪽방의 기록(가제)'을 주제로 사진·영상 등 시각예술가들이 선미촌 내 공간에 대한 기록을 탐색하고 10월~11월까지는 '쪽방 전시(가제)'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예술가들이 여성인권과 성매매, 여자 등을 주제로 홀로그램, 미디어 피사드를 활용한 기획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 달 살아보기'라는 가제로 여행가와 작가, 블로거 등이 생활창작공간으로 쪽방 커뮤니티케이션 지원, 결과물 전시, 선미촌에 대한 답

문이다.

이후 2017년~2019년까지는 쪽방의 예술공간화 작업으로 인접한 매입 폐공가와 연계 시키는 2단계 사업과 3단계 정주형 예술창작공간화 작업을 거쳐 선미촌 기능전환의 핵심문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전주농협 옆 꽃집과 주차장 부지에 잔디와 키 작은 수목이 식재된 포켓공원을 조성해 선미촌을 점차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미촌 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과 도로무단점용단속, CCTV설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선미촌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전주문화재단과 협력해 선미촌의 문화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해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무더위 쉼터 찾아 애로사항 청취

완산구(구청장 이용호)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 점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 증가 등 사고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쉼터 냉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산구 내 무더위 쉼터는 18개동 총 226개소로 시와 구, 각 동 주민센터가

폭염 대비를 위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되고 있다.

이용호 완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을 자주 마실 것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유난히 무더운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소아응급환자 안심하고 진료 받는다

완산구 예수병원 내 '365·24 아동진료실' 개소

전주시 소아응급환자들이 일반 성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전문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진료소가 예수병원내에 조성됐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예수병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의원 및 관창영 병원장을 비롯한 예수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5·24 아동진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365일·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아동진료실 운영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당직의사와 응급의학과 전문가가 연중 독립된 별도공간에서 진료하는 아동진료실이 지난해 12월 덕진구 대자인병원에 이어 완산구 예수병원에도 문을 열면서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응급을 요하는 전주 영·유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동진료실 운영으로 영·유아들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인 환자와의 분리·치료가 가능해져 감염 위험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아동진료센터에서 치료를



전주시는 9일 예수병원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시의원, 관창영 병원장을 비롯한 예수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5·24 아동진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받는 영·유아들의 경우 성인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받는 영·유아들과 비교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심야진료 및 치료가 가능해져 부모 등 시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365·24시간 당직의

사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들과 완산구 아동진료실 운영을 위한 간담회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예수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365·24 아동진료실을 통해 신속한 영·유아 응

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폭염 장기화 '무더위 쉼터' 시설점검

덕진구 정태현 구청장은 9일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내 무더위쉼터에 대해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정 청장은 연이은 폭염특보 발효 등 무더위가 장기화 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무더위 쉼터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덕진구 관내 무더위 쉼터는 다음달 말까지 운영되며 총200개소(경로당

180, 관공서 16, 기타 4)에 수용가능 인원은 7,550명 정도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무더운 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방바닥이 갖춰진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자 과장은 "연이은 폭염에 무더위 쉼터의 방바닥 등 각종시설물에 대해 수시 점검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교회서 금품 훔친 일당 입건

장수경찰서는 9일 교회와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A(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7일 밤 11시30분경 장수군 한 교회에 침입해 현금 6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장수지역 주택가와 상가 등에서 모두 8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회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심야시간대 교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 당기 교회에 설치된 CCTV에 자신들의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카메라를 돌려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서 아파트에 불 주민 20여명 대피 소동

9일 오전 1시께 전주서 서신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주인 A(62·여)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주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 아파트 내부와 집기 등을 태워 1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